

철강업계, 내달 H형강 가격인상… 실적회복 ‘기대반 우려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인상 추진
건설 경기침체로 철강 수요 급감
가격인상 통한 수익성 확보 불확실

건설 경기 침체로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철강업계가 H형강 가격 인상에 나섰다. 철스크랩 상승과 환율·전력비 등 원가 압박이 겹치자 제강사들이 ‘가격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착공 절벽과 유통시장 덩핑, 수입재 유입이 맞물리며 실질적인 수익성 방어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1월부터 중소형 H형강 판매가를 톤당 1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최근 유통 시세(107만 원)보다 약 8만 원 높다. 대형 규격은 이달 122만 원을 유지한 뒤 다음달 127만 원으로 올린다. 동국제강도 유통망을 통해 유사한 인상안을 검토 중이며, 양 사는 8월 하순부터 단계적 인상을 재추진해 왔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입을 모은다. 철스크랩 가격이 지난 1월 톤당 35만 원에서 9월 40만 원으로 올랐

고 환율·인건비·전력비 등 주요 원가 항목도 동반 상승하면서 제조비 부담이 커졌다. 상황이 침체됐지만 일정 수준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상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가가 오르는 와중에 건설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12.8%, 건축허가면적은 16.5%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3.3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았다. 신규 공사 착수가 줄면서 구조용 강재 수요가 감소했고 하도급 공사 물량 축소로 중소형 건축 현장의 H형강 투입량도 줄어든 상황이다.

실적도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은 상반기 매출 11조 5000억 원(-4.0%), 영업이익 827억 원(-46.2%)을 기록했고, 동국제강은 매출 1조 6192억 원(-13.3%), 영업이익 342억 원(-63.3%)으로 모두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포항2공장을 휴업하고 1공장 중기사업부와 자회사 현대IFC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동국제강도 7월 말부터 약 한달간 인천공장 철근 설비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유통 현장에서는 선현금 저가 거래가 확산하며 인상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덩핑 판매가 늘면서 유통 단가가 왜곡된 것이다. 이에 동국제강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원칙마감 정책을 유지하며 기준 이하 단가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출하 정책을 실수로 중심으로 전환해 재고 누적과 과잉공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만으로 구조적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분기 선행·동행지표가 모두 부진하다고 평가하며 하반기 착공 회복이 지연될 경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철강협회(WSA)도 올해 세계 철강 수요를 17억 4900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제조비 상승, 소비 둔화, 무역 갈등 등 복합 악재 속에 수요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수입재 유입도 부담이다. 7월 H형강 수입량은 2만 7275톤으로 전년 동월(1만 8295톤) 대비 49.1%

증가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7월 초 가격을 올렸지만 유통 시세는 월 초 일부 반영 뒤 중순부터 되레 약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된다. 중국 철강사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신증설 1톤당 기존 설비 1.5톤 폐쇄’ 규정을 시행하며 과잉 설비 감축을 유도했고, 그 결과 1~7월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국내 총수요 역시 7월 18만 7875톤(+11.7%), 8월 22만 7371톤(+1.6%)으로 소폭 늘어나며 미세하지만 수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원재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거래량 축소가 우려된다”며 “H형강은 건물 기둥이나 교량 구조물처럼 사회기반시설(SOC)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강재인 만큼, 건설경기 회복 없는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에코프로

HVM 양산 체제 돌입

고전압 단결정 기술 적용·검증

에코프로(대표 송호준·사진)가 미드니켈로 제품 다각화에 나섰다. 국내 업계 중 선도적으로 고전압 단결정 기술을 적용해 최근 기술 검증을 마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에코프로는 자동차 제조사(OEM)들의 양극소재 가격 인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전압 미드니켈(HVM)을 개발해 최근 기술 검증을 마무리하고 라인 구축에 나섰다

고전압 미드니켈(HVM)을 개발해 최근 기술 검증을 마무리하고 라인 구축에 나섰다. 에코프로의 HVM은 단결정 구조를 적용해 고전압에서도 수명과 안전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저온 성능을 크게 개선해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 개막

한성숙 장관 “딥테크, 미래 핵심 축 자리… 정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후속조치
‘AX for ALL’ 주제… 기술포럼 등 진행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산업의 신기술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자 국내·외 스타트업, 대기업, 공공기관, 벤처캐피털(VC)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포럼인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제주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제주 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스타트업 기술 체험존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부

니셔티브를 채택하고, APEC 역내 스타트업 네트워크인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공

식 행사로 열린다.

올해는 ‘AX for ALL(모두를 위한 AI 대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10대 분야 13개의 기술 포럼 ▲5개 팀의 특별 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채용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IR)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특별 세션에서는 APEC 회원국 등 7개국의 교류 프로그램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가 함께하는 사우디닷컴이 진행돼 업계 최신 동향과 기술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AI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17개사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준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딥테크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혁신을 넘어 미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정책 환경에 발맞춰 딥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세아항공방산소재, 창녕 신공장 대규모 투자

2034년까지 1000억원대 투자

세아베스틸지주가 구조적 성장세에 진입한 글로벌 항공기 소재 시장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선다.

세아베스틸지주의 자회사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연간 770톤 규모의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신공장을 경남 창녕군에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588억 원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고강도 항공용 알루미늄 소재 상업 생산에 돌입, 보잉·엠브라에르·이스라

엘 항공우주산업(IAI)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신공장 가동 이후 오는 2034년까지 단계적 설비 증설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총 투자 규모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공장에는 최신식 압출기와 열처리 등 첨단 생산라인이 구축되며 항공기 동체·날개용 핵심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한다.

특히 고온에서 소재를 급속 냉각해 강도·내식성·인성을 높이는 급냉 방식 특수 열처리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항공용 알루미늄 소재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현대글로비스, 부산 종합물류센터 구축

경남도, 창원시 등 다자간 투자협약

현대글로비스가 28일 경상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신항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다자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의 목적은 경상남도 안에 사업장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과 지역 관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다.

현대글로비스는 약 1800억 원을 투자해 부산신항 옹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안에 거대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하반기 준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물류센터가 준공되면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꺼내 검수하는 작업(Devanning)부터 보관, 집하, 선적 전 처리까지 일원화할 수 있다. 또한 직영 물류센터인만큼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고객사의 편의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부산신항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현재 포워딩 사업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부품 뿐 아니라, EV 배터리, 냉장·냉동 화물, 프로젝트 화물 등 비계열 물량 영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CC-동반위

협력기업 생태계 활성화

KCC가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에 추가로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KCC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첫 체결 후 기간(3년)이 끝나 진행한 재협약으로, KCC는 향후 3년간 ‘납품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복지와 기술경쟁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기존 157억원에서 183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KCC 관계자는 “재협약은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복지, 기술, 금융 등 협력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첨단기술기업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지원 범위를 첨단기술기업까지 넓혔다.

28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적용(최대 20억원)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 감면(최대 0.5%p)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 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